

# 히라도의 세계유산 탐방

## 히라도 관광 지도

### 나가사키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

#### 히라도의 그리스도교 역사

##### 전래와 변영의 시대

###### 1. 서쪽의 도읍 ‘히라도’에서 시작된 포교

1550년, 이미 해외와의 교역이 활발했던 히라도 항에 일본에서는 최초로 포르투갈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각지의 센고쿠 무사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 서로 전쟁을 벌이던 센고쿠 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해,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히라도를 방문하면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덴몬지라는 교회당이 이곳에 건립되었습니다.)

##### 전래와 변영의 시대

###### 2. 그리스도교의 확산과 더불어 건립된 교회당

당시에는 마쓰라 다카노부(1529~1599)가 다이묘(영주)로서 히라도 번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쓰라 다카노부는 교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신인 고테다 야스쓰네와 그의 동생 이치부 가게유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558년과 1565년, 고테다 형제의 관할령이었던 이키쓰키시마 섬과 히라도지마 섬의 서해안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이 지역은 일본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교가 번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면서 그리스도교와 신자들은 모두 ‘기리시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교 금교와 은밀하게 지속된 신앙 계승의 시대

###### 3. 그리스도교의 탄압 시작

센고쿠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일본 전국 통일을 꾀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1587년에 그리스도교 신부를 국외로 추방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도에서는 1599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던 마쓰라 다카노부가 사망하고 신자이자 가신이었던 고테다 야스쓰네와 이치부 가게유가 영지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리스도교 금교와 은밀하게 지속된 신앙 계승의 시대

### 4. 잠복의 시작

지금까지 히라도에 있었던 교회당이나 십자가는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불교나 신도(神道)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리시탄의 신앙도 은밀히 이어갔던 이곳의 기리시탄은 ‘잠복 기리시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난도가미(작은 방으로 사용되던 난도에 숨긴 신)’를 모시고 ‘오라쇼’라는 기리시탄의 기도문을 외우며 대대로 신앙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 그리스도교 금교 해제와 복귀의 시대 1

### 5. 은밀히 계승되어온 의례

그리스도교 금교가 해제된 이후에도 금교기에 은밀히 지켜온 신앙의 형태를 계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역의 신앙을 지키며 돌아가신 선조를 숭배하고 선조가 순교한 장소를 성지로 삼았습니다.

가쿠레 기리시탄은 지금의 일본 가톨릭 종파의 그리스도교 신자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가쿠레 기리시탄들은 금교기와 변함없이 불교와 신도(神道)를 함께 신앙하는 독자적인 형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리시탄의 신앙에 관한 부분에 주목해 보면, 16세기 말엽부터 17세기 초엽에 이르는 그리스도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금교 해제와 복귀의 시대 2

### 6. 그리스도교로 복귀

1853년 페리 제독이 내항하면서 일본의 쇄국 정책은 끝이 났습니다. 1865년, 나가사키의 외국인 거주지에 건설된 오우라 천주당에 잠복 기리시탄의 한 무리가 찾아옴으로써, 일본의 신자들이 오랜 탄압의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수호해온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873년,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철폐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각지에서 포교 활동을 벌인 결과, 잠복 기리시탄들은 신앙을 드러내며 취락에 교회당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